

COVID-19과 한국의 사회적경제: 성과와 미래 과제

조영복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COVID-19 a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

Cho, Young-bohk
Business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2019년 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현재까지 건강, 경제, 사회, 네트워킹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될 것이며, 주요하게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업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팬데믹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청소위생 및 보건업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에서 호혜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협업을 통해 COVID-19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COVID-19에 일차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과제를 선정,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가정신, COVID-19 뉴 노멀, 미래과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the situation of social enterprises under CIVID-19 Pandemic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The COVID-19 pandemic which started at the end of 2019, has influenced the various areas of our society, such as health, economic, social and networking. The virus is spread through human respiratory, and it is working as a disability factor in human focused social economy.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ocial entrepreneurs are being constrained in financial aspects.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pandemic, the size of the social economy has been expanded and cleaning & health businesses are showing economic performance. This is to tell the fact that social economy is solving COVID-19 issues based on a reciprocity and solidarity. To create a sustainabl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we should select and promote universal and concrete future directions at the economic and social safety net building level rather than to respond to COVID-19.

Key Words :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Social Entrepreneurship, COVID-19 New Normal, Future Directions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ho, Young-bohk(ybcho@pusan.ac.kr)

Received January 31, 2022

Revised March 16,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2019년 12월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2021년 도 7월까지도 건강, 경제, 사회, 네트워킹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모두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서도 국내에서 하루 확진자 6~7백여명¹⁾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COVID-19는 우리들의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COVID-19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폐쇄되었다(Gong et al., 2020; Liguori & Winkler, 2020)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 2]. 또한, COVID-19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인간을 인간에게서 멀어지도록 강제하는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남다른 지독한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들 이야기한다. 이러한 정의만으로도 사람을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COVID-19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확장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주체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또한 민간 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훼손되었다(Weaver, 2020)고 볼 수 있다[3].

다만, COVID-19가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제기되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확인된 자료가 미흡하다.

본 논문을 통해 COVID-19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사회적경제의 뉴노멀(new-normal)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적용되어 사회혁신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양적, 질적 확산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기업과 COVID-19

본 연구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 초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로 ‘(1)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2)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3) 지역사회를 재건하며, (4)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며, (5) 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유용한 그릇으로 지역발전과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조영복, 2008)’이라고 규정한다[1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¹⁾와 그 밖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조직(기업)’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면, COVID-19를 지역사회 내에서 극복하는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COVID-19 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청소, 방역, 보건교육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경제적인 가치의 창출과 함께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고 예방하는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상황 하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급격하게 사업이 축소되는 환경을 맞아,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수행하는 맞춤형 병행, 적응유연성을 발휘하여 ICT 디지털 솔루션 활용 등의 전환적인 활동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는 때보다 경제적 안정과 통합과 같은 사회의 질이 재난 극복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강병노, 2020)[4]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해 사회의 질이 사회·경제적 안정, 사회적 응집과 포용, 사회의 역동성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이태진, 박은영, 2009)[5]는 연구를 확인시켜주는 결과일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성과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지표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제공자료 중 2021.04.01.~ 06.30.까지의 일별 확진환자 추세를 참조하였음(일평균 684명 수준).
- <http://ncov.mohw.go.kr/index.jsp>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SVI, Social value Indexs)²⁾에 대한 측정 결과를 살펴 보면 COVID-19 하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2021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지원에 참여한 166개 사회적경제기업의 2020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 2019년의 68.5점에 비해 73.8점으로 5.3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 사회적가치지표의 세부 지표인 관점별 평균점수는 사회적성과가 60점 만점에서 44.8점으로 전년대비 2.0점 상승하였으며, 경제적성과는 30점 만점에서 20.9점으로 전년대비 2.3점, 혁신성과는 10점 만점에서 8.1점으로 전년대비 1.0점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COVID-19 상황 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목표인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훼손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회적기업가정신과 COVID-19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COVID-19 팬데믹이 기업가들에 미친 가장 커다란 충격은 재정적인 부분(Weaver, 202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3]. 또한 팬데믹 초기 이후 자금 조달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감소되었다(Brown & Rocha, 2020; Cowlin, 2020)는 보고[7, 8]는 성장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사회적기업가들이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COVID-19로 인하여 비즈니스의 축소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둘러싼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과 교육업종의 사회적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 생존의 핵심 활동으로 인식하고 전환을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주요한 사회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COVID-19가 진화하는 현상에 비추어 디지털 정보격차 현상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보취약계층

역량강화 교육훈련 필요성(김소영, 정진택, 2021)[9]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의 성과와 유사하거나 더욱 더 향상된 성과를 보고하는 기업들 또한 존재한다. 해외 비즈니스 연구 사례지만 COVID-19 팬데믹 초기단계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의 가치가 COVID-19과 관련이 있거나 팬데믹 이전에 위기 관리 조치를 구현한 기업이었다(Kuckertz et al., 2020)는 연구도 존재한다[10].

사회적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또한 이와 같이 COVID-19로 인하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가정신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발현을 통해 COVID-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보통의 기업에서는 불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역할일 수 있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COVID-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체계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증명하고, COVID-19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2.3 사회적경제 정책과 시대적 변화

그간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부터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펼쳐졌으며 그 공과는 시민사회 또한 인지하고 있다. 20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펀드도 조성되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투자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금융 활성화, 소셜벤처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법,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기본법, 공공구매 등 판로촉진법 등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담론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도에 불과 50여개에 달했던 사회적기업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5,761개의 기업이 54,659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다양한

2) 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적운명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한 성과측정 도구임.

영역에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규모에 대한 지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전체고용의 60.6%가 넘는다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의 통계자료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로 일반 창업기업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16].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성과 도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현대자동차, 한국최소 소셜펀드 조성에 나선 LG,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평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과에 투자하고 있는 SK, 그리고 지역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투자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부산의 9개 공공기관³⁾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역할도 많은 기업들로 확산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생태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다. 매년 1,000여명 이상이 모이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이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돈과 인재의 흐름도 바뀌고 있으며, 기부로 일관하던 자선사업들도 이제 영향력(임팩트)투자라는 이름으로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세계 초일류 경영대학들이 선도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2014년부터 임팩트투자포럼(impact investment forum)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와튼스쿨과 코펜하겐대학은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대규모 온라인 강좌인 MOOC를 개설하고 전 세계에 자신들의 강좌를 전파하고 있다. 필란트로 피유니버시티 또한 버클리대학이 지난 2015년에 전 세계의 사회적기업가를 위해 개설한 인재양성 과정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지금의 시장과 환경에서의 경쟁이 지금보다 더해서는 안 되며(no more), 무한경쟁으로 인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선량한' 인류의 자각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의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

행되는 것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ESG경영의 도입을 검토하고 적용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대기업·공공기업과의 협력적 비즈니스를 통해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비즈니스의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사회가 단기간 내 고도성장의 그늘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는 더 이상 고용 친화적이지 않으며, 수많은 사회문제의 해결과 눈높이가 높아진 시민사회의 복지요구를 따라가기엔 정부가 가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본으로 지속적으로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와 더불어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충격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방역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차원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사회와 정부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적기업에서 확대된 사회적경제의 활동들도 호혜와 협력에 기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3.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 조성

지난 15년 간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전까지의 기간을 '제도화 이전 단계(1998~2006)'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된 공공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색하고,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5년의 기간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법령에 의해 정부에서 제시된 정책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의 서비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고, 사회적기업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1차 육성단계(2007~2012)'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양적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된 '2차 육성단계(2013~2017)',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확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화두로 제시한 '3차 육성단계(2018~2022)'로 나눌 수 있다.

문제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3차 육성단계는 정부주도에서 다소 벗어나 '민간-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은 짧은 기간 동안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특히 취약계층을 넘어 제2의 인생에서 일자리와 보람을 찾고자 하는 은퇴한 화이트 칼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등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생존,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져 한다.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차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사회적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인 시스템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조영복, 2014)[11].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조직이지만, 복지기관과 차별성을 가지며, 기업과 같은 경쟁 환경 속에서 자원의 투입과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물을 만들어 내고 다시 피드백 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시스템이론에 기반 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는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피드백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투입면에서는 경영의 요소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확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익숙한 인적자원, 물적자원과는 차원이 다른 자원에 대한 확보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조영복, 2014)[11]. 사실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 인적자원은 주로 사회복지분야나 사회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제는 사회복지 중심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직원, 정부관료, 전문직으로 인적자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회적 미션을 가진 사람, 사회문제 해결과 경영능력을 가진 역량 있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물적자원 측면에서도 인건비 위주의 정부지원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수준과 형태의 자본이 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조영복, 2014)[11]. 초창기 사회적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이 확충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 P2P 금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착한 비즈니스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혁신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거래소 설립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과정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과 첨단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성공한 모델의 복제, 그리고 보편화된 적정기술의 활용이 더 필요하다. 새로운 모형과 혁신적인 모델에 대한 시도 보다는 성공한 아이디어와 모델을 공정(소셜) 프랜차이즈로 확산하는 방안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세계에서 첨단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회적기업들도 보편적 기술로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기법도 중요하지만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경영기법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산출면에서는 소비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기업 소비시장은 제조 후의 판매시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조성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시장생산으로서 구매시장의 확보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시장생산보다는 주문생산이 생산능력과 예측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는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일반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최소한 동일한 품질과 가격

으로 에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아이디어 발굴 및 구매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둔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역할의 범위와 방법도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의 피드백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우리의 열정의 산물이며,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주도하는 매개체이며, 성장 중심의 우리 경제시스템이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잘못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no more)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 전반의 시민사회 인식과 태도변화를 통해서 이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우선가치를 경쟁에서 화합으로, 독점에서 동반으로, 단기에서 장기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성공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유년기, 청소년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과 더불어 사회적 조화가 필요함을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평가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가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 또는 독립된 평가기관은 사회적기업의 평가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과 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때 건전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회적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 사회적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사회적 목적 추구성이 부족한 기업들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장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특히 점차 퇴색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참여를 위한 지배구조의 문제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생태계 내의 조화와 협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도권 논쟁은 결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4. COVID-19 이후 뉴 노멀(new normal)

뉴 노멀(New Normal)은 새롭게 형성된 경제 질서를

통용하는 경제학 용어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정형화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인, 저성장·저물가·고실업률·정부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의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또 하나의 정상적인 표준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및 경제체도를 희망하는 시대적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COVID-19 시대를 겪으면서, COVID-19 이후의 뉴 노멀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재준, 임송식 그리고 이고은(2020)의 연구에 의하면 COVID-19 이후의 뉴 노멀⁴⁾로 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②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대면 사회·경제활동의 급격한 증가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③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호무역의 확산과 민족주의의 확대, ④ 방역의료시스템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성장 경제기조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12].

이재준 등(2020)의 연구에 따라 제시된 'COVID-19 이후의 뉴 노멀'을 연구자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재해석 한다면, 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성장 기조에 맞는 경영 내실화 및 소셜미션 강화 ②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대면 활동 증가에 맞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통한 신 성장 동력 구축 ③ 지역성의 관점에서 지역밀착형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전제로 한 인지도 향상 및 윤리적 시장창출 기회의 확대 ④ 정부재정지원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COVID-19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자확대와 더불어 민간자본 중심의 장기적인 재정지원정책의 전환 등을 COVID-19이후의 사회적경제 뉴 노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COVID-19 이후의 뉴 노멀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뉴 노멀에 대한 해석을 연구자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의 Fig. 1과 같다.

사회적기업가들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회복탄력성이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백유성, 2020)는 연구가 있다[13]. COVID-19으로 일시적인 공황과 불안정을 경험한 사회적기업가들은 높은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COVID-19에 대응하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씩 확인하고 있다. 업종별 협력을 통해 COVID-19이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활동을 증명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4)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2.0 시대의 환경변화, K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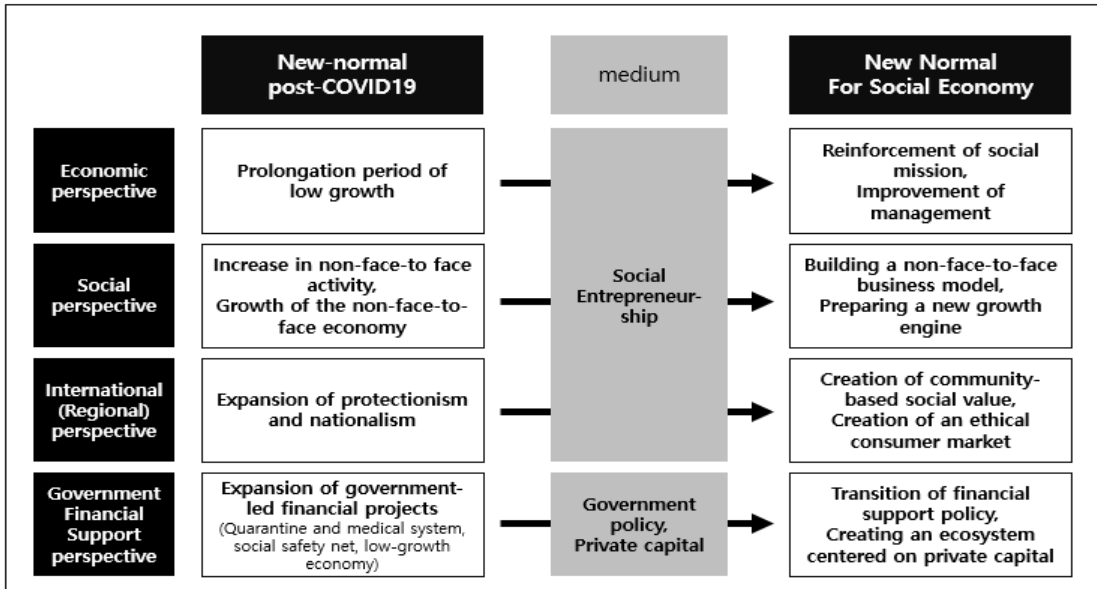


Fig. 1. Post COVID-19 New normal for social economy

5.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미래 과제

COVID-19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COVID-19이라는 특정 이슈 중심으로 현재를 경영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연구자는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미래 과제로 다음과 같이 보편적이면서 구체적인 7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점을 정부주도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질적인 고도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통한 양적성장 방식에서 질적인 고도화, 질적성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ESG경영과 같이 착한 경제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낮은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임팩트금융과 사회적금융의 확대 등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기부에서 벗어나 사회적 투자와 금융으로 자금조달의 방식을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으

로 인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훼손되고 부정당하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확대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팽창에 따른 자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다양한 전공의 융합을 통한 평생교육 방식으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육성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경영학과 사회복지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고 사회문제를 혁신할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성과의 측정과 평가 또한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져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와 함께 굳건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존재의미를 가지려면 사회적경제 영영의 독자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조희문, 2021)[14].

여섯째,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도 국내 중심의 초록이 동색인 네트워크가 아닌 서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가들은 미션 중심의 비영리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혁신에 초점을 둔 전문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미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이며 남들이 보기에 한없이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영역량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역량은 아니며, 기업가를 더욱 더 힘

들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돈을 벌고, 그 수익을 또 다시 사회를 위해 재투자,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경영 환경은 복잡성과 변동성이 더욱 심해져 지금보다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기업가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 더 키워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COVID-19 팬데믹 상황 또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의한 갈등과 인구의 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인한 재정적 압박, 그리고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인 실업의 고통은 우리사회가 가진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조영복, 2014).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매5년 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육성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에 시행될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COVID-19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대응 및 현상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 연구의 미래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약은 아니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확신이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난 15년의 양적 팽창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우리 사회와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연구자들의 동참과 협력으로 함께 설계하고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Gong & Y. Xiong & J. Xiao & , L. Lin & X. Liu & D. Wang & X. Li, (2020), China's Local Governments Are Combating COVID-19 with Unprecedented Responses—from a Wenzhou Governance Perspective, *Frontiers of Medicine*, 14(2), pp.220-224.
- [2] E. Liguori & C. Winkler, (2020), From Offline to Online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dagogy Journal*, 3(4), pp.346-351.
- [3] Weaver Rasheda L,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11, pp.1-9.
- [4] Kang Byeong-Ro, (2020), *Social Quality and Response Strategie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at the Age of New Social Disasters COVID-19*, Cooperative Economics and Management Review, 53, pp.17-39.
- [5] Lee Tae-Jin, Park Eun-Young, *Social Indicator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 Qua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 ISSN 1226-3648,
- [6] Jin Hyun-Ho, Shin Kyoung-Chul, (2022), *A Study on Support for Measurement of Social Value Index f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2021*, Korea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7] R. Brown & A. Rocha, (2020), Entrepreneurial Uncertainty during the Covid-19 Crisis: Mapping the Temporal Dynamics of Entrepreneurial Fin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14, e00174.
- [8] R. Brown & A. Rocha & M. Cowling, (2020), Financing Entrepreneurship in Times of Crisis: Explor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Market for Entrepreneurial Finance in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Researching Entrepreneurship*, 38(5), pp.380-390.
- [9] Kim So-Young, Jung Jin-Taek, (2021), A Study on the Changes in Digital Perception of Information Vulnerable Class After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2), pp.531-539.
- [10] A. Kuckertz & L. Brändle & A. Gaudig & S. Hinderer & R. Morales & A. Carlos & A. Prochotta & K. M. Steinbrink & E. S. C. Berger. (2020), Startups in Times of Crisis - a Rapid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13, e00169.
- [11] Cho Young-Bohk, (2014), "Fostering Social Enterprise for A Better World, *Social Enterprise Studies*, 7(1), pp.5-10.
- [12] Lee Jae-June, Lim Song-Sik, Lee Ko-Eun, (2020),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Post COVID-19 New Normal 2.0 Era(KDB Monthly)*, Seoul : Korea Development Bank,
- [13] Roh Joon-Ik, Hoh Jin, Back You-Sung,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Job Burnout and Customer Orientation, *Social Enterprise Studies*, 13(3), pp.193-214.
- [14] Jo Hee-Moon, 2021,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Focusing on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in Portugal and Korea*, HUFs Law Review, 45(3), pp.225-250.
- [15] Cho Young-Bohk, Yang Yong-Hee, Kim Hye-Won, (2008), A Policy Direction for Creating and Foster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Studies*, 1(2), pp.61-89.

- [16]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2021),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1*, Korea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ISSN 2765-6438.

조 영 복(Young-bohk Cho)

[상하원]



- 1980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82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1985년 2월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0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

대학 교수

- 2013년 12월 ~ 2015년 11월 : 사회적기업학회 초대회장
- 관심분야 : 인사조직,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 평가, ESG
- E-Mail : ybcho@pusan.ac.kr